

치 사

봄꽃 향기가 곳곳에 흐르더니 이내 산하대지가 신록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 해의 자연만물이 성장해가듯이, 우리 사회도, 우리들의 삶의 양식도 시대에 따라 변하며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불교의 진리를 여러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설법(說法)도 마찬가지입니다. 때와 장소, 함께하는 사람들의 심성에 맞추어 변화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전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제1회 조계종학인 설법대회”는 학인스님들이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설법제일인 제2의 부루나 존자가 되어, 설법사로서의 기량을 선보이는 소중한 자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법을 설하는 이는 여래의 집인 대자비(大慈悲)와 여래의 옷인 인욕(忍辱), 그리고 여래의 자리인 법공(法空)에 의지해서 법을 설해야 한다고 『법화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이의 설법은 때에 맞고 정성스러워야 하며, 차례에 맞고 화합으로 인도해야 하며, 이치를 따라야 하고, 대중을 경시하거나 꾸짖지 말아야 하고, 나와 남을 다 이롭게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설법이생(說法利生), 설법이익(說法利益)이라고 하였듯이, 설법을 통한 불교의 홍보는 곧 만 중생들을 이롭게 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오늘 대회 주제를 “설법, 세상을 꽃피우다”로 정한 것도 이러한 의미를 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법을 법시(法施)라 하였듯이 많은 불제자가 부루나 존자가 되어,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법을 널리 베풀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로 같은 법문을 설하고 들으면, 견줄 데 없이 단정하고 총명하며 큰 지혜를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설법사로 나선 학인스님들이나 듣는 이들 모두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뜻 깊은 오늘을 마련해주신 교육원장스님과 소임자 여러분, 그리고 학장스님과 교수스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열과 성을 다하여 동참한 학인스님 모두의 노고에 깊은 치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법문과 정진의 마음가짐으로 튼실한 수행의 열매를 이루어 가고, 사회와 대중의 안락으로 널리 꽃피워지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61(2017)년 6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